

**NOROO**

NOROO

Summer. 2016



Summer. 2016

자전거。

**NOROO** Quarterly Magazine | 2016년 여름 40호

**NOROO**

**Special Theme**

자전거로 자립하다

- 06 Interview** 두 바퀴로 순환하는 자전거
- 10 Information** 자전거로 바꾸는 풍경
- 12 Interview** 어느 명품 자전거의 우리 집 정착기

**Culture Gallery**

- 16 Finance** 불필요한 가계지출을 막아라  
세금·공과금 절약노하우
- 18 Smart Watch** 스마트폰과 시계의 만남, 스마트 워치
- 20 Health** 모기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 22 Juice** 컬러로 즐기는 주스

**NOROO People**

- 26 Compliance & Communication** 하나됨을 위한 젊은 소통, 노루이음  
NOROO 그룹 조직문화기구, 노루이음 청단식
- 30 Social Contribution** 함께하는 마음이 반짝반짝  
(주)노루페인트와 푸른산업의 성덕원 페인팅 후원
- 36 Cheerful Time** 패러글라이딩으로 도전을 연습하다  
(주)노루크로비스 지일신 주임
- 38 Family Time** 달콤하게, 싱그럽게 시간을 채우는 향수  
(주)노루오토코팅 백현정 과장과 아들 이윤우
- 42 Special Store** 페인트의 컬러 해결사, (주)칼라메이트 강동천호점
- 46 News Briefing**
- 50 1 Minute Guide** 여름, 소소하게, 시원하게
- 51 Behind Cut**

**NOROO 그룹 사보 담당자**

(주)노루홀딩스 인사총무팀 장원석 과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2 캐피탈타워 A동 10층  
T:02-2191-7716

(주)노루페인트 마케팅전략팀 지남철 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T:031-467-6128

(주)아이피케이 총무팀 최대섭 차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국민연금 부산회관 17층)  
T:051-580-8363

(주)노루오토코팅 전략기획팀 안세현 주임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공단 7길 28  
T:031-8059-9533

(주)노루케미칼 인사총무팀 현준 주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285번길 13  
T:031-599-7276

(주)노루비케미칼 경영지원팀 이승아 사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1로 111  
T:041-620-6200

(주)노루코일코팅 지원팀 박서진 대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T:031-467-6486

(주)노루로지넷 총괄지원팀 전희경 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T:031-467-6363

(주)노루알앤씨 인사총무팀 현준 주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285번길 8  
T:031-599-7276

칼라메이트(주) 업무총괄팀 유은아 사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T:031-467-6379

# 자전거로. 자립하다.

자신의 첫 걸음마를 기억하는 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전거의 두 바퀴를 스스로 굴리는 데 성공한 순간은 누구나 기억할 것입니다. 내 몸을 싣고 아슬아슬하게 비틀대던 자전거가 중심을 잡으며 앞으로 나가던 불안하고도 짜릿했던 순간은 첫 자립의 장면으로 영원히 기억에 남지요. 이 순간은 개인적 자립에서 나아가 인간이 낼 수 있는 속도의 한계로부터의 독립이자, 전기나 기름으로 움직이는 인공적 동력에 대한 독립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19세기 이후 최고의 발명품으로 자전거가 꼽히는 이유일 것입니다.

06.	Interview	10.	Information	12.	Essay
	두 바퀴로 순환하는 자전거		자전거로 바꾸는 풍경		어느 명품 자전거의 우리 집 정착기





자전거로 세계여행을 하며 그는 많은 이들과 만남의 약속을 잡았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기에 한 달, 때론 두 달이 걸릴 거라는 그의 전갈에 상대방들은 기꺼이 기다리고, 두 바퀴를 굴려 찾아와 준 것을 고마워했습니다. 이렇듯 자전거는 목적지를 향하는 기다림과 노력의 가치를 깊지게 일깨워 줍니다.

## 두 바퀴로 순환하는 자전거

### 자전거 희망 여행가 박정규

“사람들은 모두 어디론가 가길 원합니다. 원시인일 때부터 그랬지요. 인류가 발전해 온 것은 미지를 찾아가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힘을 자꾸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힘은 소멸되어 가는 것 아닐까요. 자전거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는 건, 제 힘에 의한 것입니다. 페달을 밟을 수 있는 힘은 나에게서 나오죠. 외부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고 내 안의 에너지를 찾는 법, 자전거에서 배웁니다.” \_박정규

#### 여행의 동력

#### 내 힘으로 달려 마음으로 들어가다

아카시아 꽃이 한창이던 2006년 5월, 한 청년은 세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의 수중에 있던 돈은 단 200달러, 그리고 일주일 전 산 자전거 한 대. 무모하게 떠난 여행은 3년간 이어졌고 아시아, 북미, 남미 16개국 27,000km를 돌아 다시 한국에 왔을 때 그의 자전거는 예전 모습을 찾을 수 없었지만 200달러는 그대로였습니다. 여행길에 만난 이들의 선행은 그의 가난한 주머니가 비도록 두지 않았지요. 그는 이를 자전거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자전거 희망 여행가 박정규 씨의 이야기입니다.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인 저에게 기꺼이 자신의 집 한 켠을 내어주고 식사와 담요를 준비해 주었죠. 칠레의 버스 운전기사는 달리는 저에게 차창 너머로 자신의 도시락을 주기도 했어요.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자전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오토바이나 자동차로 달린다면 누군가가 ‘이리 와서 같이 밥 먹자’라는 말을 꺼내지도, 혹 껴낸다 해도 속도 때문에 들리지 않았겠죠. 하지만 자전거는 누군가가 손을 내밀면 멈추기 좋은 속도와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그는 자전거가 낯선 사람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라고 말합니다. “자전거는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는 매개체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여행자는 일단 누구라도 도와주고 싶을 만큼 힘들어 보이거든요!” 힘들어 보인다는 말 그대로, 자전거 여행자는 자신의 힘을 들여 바퀴를 굴려야 합니다. 그것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두드리지요. 그것은 자전거의 본질이며, 자전거 여행의 동력입니다.

## 두 바퀴의 흐름으로 바꾸는 세상

여행 후 그가 일하고 있는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이하 '하자센터')의 무.나.싸. 자전거 공방의 벽에는 자전거의 뜻이 자립, 전환, 보거로 커다랗게 써 있습니다. 자립은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유지하고 얹매임 없이 스스로의 역할을 찾아가는 것, 전환은 사물의 성질과 경향 등이 이리저리 바뀌는 것, 보거는 수레의 덧방나무와 바퀴라는 뜻으로, 뗄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말합니다. 자립과 전환, 보거의 글자 하나씩을 모으면 자전거, 스스로의 힘으로 굴러가는 수레의 의미가 완성됩니다.

"자전거는 레저만이 아니라 배움의 컨텐츠로도 훌륭하게 기능합니다. 자전거를 통해 내 에너지로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달으면 굉장히 큰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자신감은 학생들, 청년들에게 꼭 필요해요. 무.나.싸. 자전거 공방은 자신의 에너지를 발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에너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청소년들과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버려진 자전거를 새로운 용도로 재탄생시키는 자전거 리사이클링, 자전거 영화 상영회와 바자회, 나아가서 자전거 여행까지 무.나.싸. 자전거 공방의 활동 영역을 따라가다 보면 자전거의 여러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행 후 슬럼프에 빠져있던 때, 제 에너지를 일상 속에서 찾기 위해 자전거 출퇴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퇴근할 때 타고 다녔던 버스가 제 자전거 옆에 서더군요. 버스 안을 보니, 예전의 제 모습이었을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불어오는 바람과 두근대는 심장 소리, 가쁜 숨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면 몸이, 마음이, 생활이, 생각이 바뀌고 어떤 희망의 흐름이 생깁니다. 제 개인에서 나아가 사회로 그 흐름을 넓히고 싶습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자전거의 기적을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사회에게 널리 퍼뜨리고 싶다는 자전거 희망 여행가 박정규 씨는 이제 한국의 일상에서 작은 기적을 만드는 중입니다. 자전거 출퇴근으로 모은 교통비로 간식과 감사의 편지를 준비해서 버스 기사, 리어카로 폐지를 모으는 어르신들, 대형마트 계산원, 지하철 승객 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의 일상을 응원하는 오라이 프로젝트지요.

"자전거는 내 힘으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넓은 세계로 갈 수 있게 해 줍니다. 일단, 자전거를 타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박정규 씨가 응원합니다. 아무래도 더 늦기 전에 자전거를 타야겠습니다. 두 바퀴로 나와 세계의 선순환을 시작해 봅시다!



그는 세계여행 후 무.나.싸. 자전거 공방의 매니저로, 교사로 활동 중입니다.

무.나.싸.는 무한 나눔 사이클의 출입말로 자전거를 매개로 무한한 나눔의 순환을 만들자는 바람에서 탄생한 자전거 공방입니다.

# 자전거로 바꾸는 풍경

'자전거를 타고 저어갈 때, 세상의 길들은 몸속으로 흘러들어온다.' 소설가 김훈의 베스트셀러『자전거 여행』을 여는 글입니다. 그 프롤로그는 '땅 위의 모든 길을 다 갈 수 없고, 땅 위의 모든 산맥을 다 넘을 수는 없다 해도, 살아서 둘으로 바퀴를 굴려 나아가는 일은 복되다'로 맺어지죠. 자전거 타기의 복된 일은 사람의 몸과 정신을 건강케 하고, 지구의 지속가능성까지 높입니다. 세상의 많은 발명품이 지구에게 빛을 지며 탄생할 때, 자전거는 우리와 지구의 일부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공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전거를 타야 합니다. 인간의 두 다리는 걷고, 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굴리기 위해서도 존재합니다.



## 일단, 자전거를 고릅시다

산을 즐기는 산악용, 속도가 빠른 로드용, 산악용과 로드용의 혼합형인 하이브리드, 가볍고 기교가 많은 픽시 등 세상엔 많은 자전거가 있습니다. 종류가 많으니 선택의 폭도 넓을 것 같지만, 자전거 이용의 명확한 목적이 없다면 결정은 더 어려워질 뿐이죠. 동네에서 탈 건지, 산에서 탈 건지, 출퇴근에 이용할 건지 결정한 후 그 길의 지형과 거리를 참고합니다. 자전거의 종류를 결정했다면 자신의 신체 조건에 맞는 크기를 찾아야지요. 생활용 일반 자전거는 안장에 앉아 양쪽 발의 반 정도가 땅을 밟을 수 있어야 하고, 산악 자전거는 조종이 쉬워야 하므로 운전자의 체격보다 조금 작은 게 좋습니다. 도로용 역시 자전거를 가운데 놓고 땅에 발을 완전히 디딜 수 있을 정도로 여유 있어야 하고요. 그후엔 자전거 보관 장소를 고려합니다. 들고 계단을 오르거나 운반해야 한다면 무게와 부피도 중요하지요.



## 안 된다면, 빌려 탑시다

자전거를 떠올리면 웬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바람을 느끼며 달리는 것을 상상하게 되고, 그 옆으로 신록과 푸른 강물이 펼쳐질 것만 같죠. 하지만 실제로 자전거를 타는 길과 내 체력은 상상만큼 멋질 수 없는 게 함정입니다. 강변을 만나기 위해서는 빼곡한 건물과 도로를 지나쳐야만 하고, 바람을 느끼려면 힘든 오르막길도 올라야 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이상 도로로 내려가려니 자동차가 무섭고, 인도를 달리려니 보행자가 무서워하죠. 하지만 이 모든 걸 경험해 본 뒤에도 자전거를 선택한다면 구석에 처박아두고 죄책감을 느끼는 시행착오는 줄어들 겁니다. 서울시 138곳에 설치된 자전거대여소의 따릉이([www.bikeseoul.com](http://www.bikeseoul.com))를 이용해서 도심에서의 자전거 타기를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 외에 경기도 고양시의 피프틴([www.fifteenlife.com](http://www.fifteenlife.com)), 대전의 타슈([tashu.or.kr](http://tashu.or.kr)) 등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 좀 더 멀리 나가볼까요?

자전거가 지금과 같은 인기를 누리게 된 데는 정부 정책의 영향도 컷습니다. 2009년 녹색뉴딜정책의 일환으로 '국토종주 자전거길'이란 이름으로 2012년까지 총 1,757km의 길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후 지자체에서도 속속 길을 닦기 시작해 강릉 경포호 산소길, 파주 DMZ 자전거길, 신안 중도 자전거섬, 제주 해맞이해안로 등 '명품 자전거 길'을 내었습니다. 매일 다니는 집 앞 공원과 출퇴근길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자전거를 싣고 자전거 길을 찾아 가보는 건 어떨까요? 행정자치부의 자전거행복나눔 홈페이지([www.bike.go.kr](http://www.bike.go.kr))를 방문하면 각각의 길을 찾아가는 방법과 코스의 난이도, 자전거 수리점 등의 편의시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상과 다른 풍경은 자전거의 속도와 바람과 마음에 변화를 주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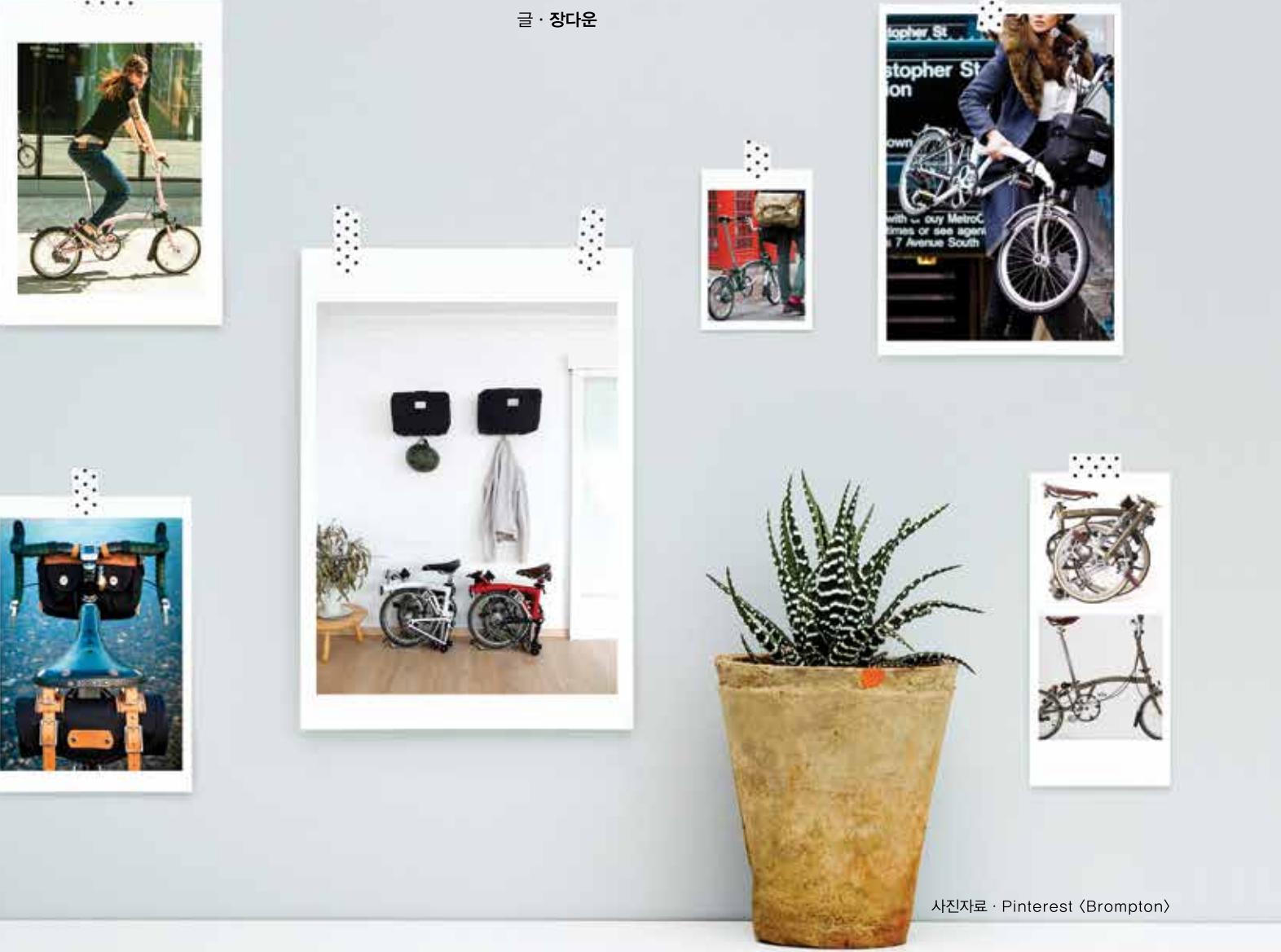
## 자전거도 안전운전이 먼저입니다

안전운전을 위해 자전거 운전 규칙은 필수입니다. 이는 자전거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자도 숙지해야 합니다. 자전거도 엄연히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차'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별별운전 표시가 없는 한, 한 차선 안에서 자전거 두 대가 나란히 갈 수 없으며 자동차 역시 달리는 자전거에게 한 차선을 내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전거는 깜박이가 없는 대신 수신호로 방향 전환을 알려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널 땐 자전거에서 내려서 '보행자'로서 가야 하지요. 그러나 어린이와 노인, 신체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전거는 보도, 횡단보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물론이고 동승자도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명심해야 할 것은 자전거 역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 어느 명품 자전거의 우리 집 정착기

저는 자출족입니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줄임말이죠. 나이가 들어가니 슬슬 몸도 행겨야하고, 그렇다고 운동하는 데 할애할 시간은 없고 해서 찾아낸 방법이었습니다. 여유를 부린다면 도보도 가능한 출퇴근길이었지만 단 5분조차 아쉬운 분주한 아침에 자전거 속도 정도로 서두를 필요는 충분했습니다. 마침 제겐 자전거도 있었고요. 영국의 자존심이라도 건 듯 손잡이가 연결된 프레임에 국기를 떡 하니 달아놓은 제 자전거 브롬튼은 한 대에 150만 원이 넘는 명품 자전거입니다.

글 · 장다운



지갑에 십만 원짜리 수표 몇 장만 들어가도 살짝 긴장하는 제게 어울리지 않는 이 자전거는 몇 년 전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유품이었습니다. 건축 사업으로 바쁘게 일만 하셨던 장인어른께서 몇 번 타지도 못할 비싼 자전거를, 그것도 지나치게 짚어 보여 마치 조랑말 같은 명품 자전거를 왜 사셨는지 저는 얻을 수 없는 대답이 늘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제게 온 브롬튼은 명품 자전거답게 알차게 접혀 사무실 한 쪽에 세워 둬도 주변 사람들에게 거추장스럽지 않았습니다.

“네 언제부터 이런 좋은 자전거를 탔어? 바퀴가 구를 때 귀뚜라미 소리가 나는 건 알고 타냐? 이건 소리까지 디자인한 브랜드인데.” 명품에 대해서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빼삭하게 꿰고 있는 사무실 선배는 의외라는 듯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그런 소리 나더라고요. 자전거도 잘 아시나 봐요. 근데 타이어 바람 넣는 구멍이 특이하게 생겨서 오토바이 매장에 가야 바람을 넣을 수 있네요. 그래서 전용 펌프가 달려서 나오나 봐요.” 전용 펌프인데도 바람이 빙빙하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불편함을 투덜대자 선배는 “펌프는 비상 시에 수리점을 찾아갈 때까지만 사용하라고 만들어진 거야. 자동차의 비상용 타이어 같은 거지.” 라며 자전거 편을 들었습니다. 주인 잘못 만난 자전거가 괜한 욕을 들은 거죠. 그런가 하면 눈썰미 있는 후배의 추천에 잡지 출연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아닌 제 자전거가요. 브랜드 다큐멘터리 잡지였는데 ‘브롬튼’이 특집 주제였습니다. 촬영에 모인 브롬튼 마니아들은 제 자전거를 둘러싸고 브롬튼이 한국에 소개 되던 초창기의 모델이라며 신기해 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의해 제 자전거의 값어치를 알아가게 되면서 저는 돼지가 진주 목걸이를 걸고 뿐듯해 하듯 흐뭇한 자부심으로 ‘브롬튼’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브롬튼의 가치를 알게 되니 불편한 점도 늘었습니다. 잠시 편의점에 들르거나 공중 화장실에 갈 때도 도둑이 염려되었습니다. 자물쇠를 채우면서도 과연 이 자물쇠는

명품 브롬튼의 격에 맞나 망설이기도 하고요. 또 도량을 건너거나 웅덩이라도 지나친 날에는 자전거가 녹슬지 않도록 일일이 마른 수건으로 닦아 주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타이어에 갑자기 평크가 나서 변두리 수리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수리기사님은 어디 대만 같은 곳에서 만든 자전거냐고 물으시며 너무도 자연스럽게 오리지널 타이어 대신 국산 타이어 부속으로 바퀴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별 필요 없는 게 떨어져 나왔다면서 ‘ㄱ’자 모양의 작은 부품을 쓰레기통 근처로 획 날려 보냈죠. 저는 살짝 꺼림칙하기는 했으나 매번 오토바이 판매점 신세를 지는 것 보다는 이참에 국산 표준 자전거 타이어를 장착하는 게 훨씬 편하겠다 싶었습니다. 부속을 떨궈내도 기능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수리기사님을 신뢰하며 사람 좋은 웃음으로 “수고하셨습니다”를 연발하고 접포 문을 나섰지요.

그리고 야심차게 계획한 섬마을 가족 자전거 여행을 떠나던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전거를 자동차에 접어 넣으려는데, 브롬튼이 알차게 접히지 않는 것입니다. 접히기 위해 분리된 관절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요. 얼마 전에 기분 좋게 베렸던 ‘ㄱ’ 모양의 부품 탓이었죠. 잠시 허탈했지만 기왕 이렇게 된 것, 이 빠진 듯한 브롬튼을 싸구려 자전거마냥 타 보자며 차에 꾸역꾸역 우겨 넣고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동안 브롬튼을 타는 게 아닌, 모시고 다니는 듯했던 제 마음이 오히려 한결 편해지더군요.

차로 나른 자전거를 배에 옮겨 싣고, 도착해서는 연육교로 이어진 섬들을 자전거로 달렸습니다. 얼마 전 보조바퀴를 뗀 큰아이는 저와 나란히 달렸고, 아직 세발자전거 신세였던 작은아이는 제 자전거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혹시라도 떨어질까 걱정이 되어서 “아빠 허리 꼭 잡아야 해!” 하고 신신당부를 하는데, 정작 제 허리를 감싸 안은 작은아이의 손이 오히려 저를 안전벨트처럼 지지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자전거와 함께하니 차로 다닐 때만큼 바쁘지 않았고, 걸어



다닐 때만큼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출출하면 어디든 들러 배를 채우고, 풍경이 근사하면 어디든 멈춰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큰아이가 수수께끼를 하나 냈습니다. “아침에는 세 발, 점심에는 네 발, 저녁에는 두 발인 것은?” 세 월이 지나도 여전히 초등학생들에게 인기인 스팽크스의 질문을 응용한 거죠. 정답은 당연히 ‘사람’이 아니라 ‘자전거’! ‘세발자전거–보조바퀴가 두 개 달린 네발자전거–보조바퀴를 뗀 두발자전거’의 흐름을 빗대어 인생의 바퀴를 이야기해 였네요. 자전거처럼 인생의 속도를 달리하면 삶도 여행처럼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후 제 자전거는 부품이 빠진 채로 우리 집 다용도실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브랜드 전문 자전거 매장에 가면 잊어버린 부품도 다시 달아주고, 배다른 형제마냥 출신 성분이 달라진 앞바퀴와 뒷바퀴도 제대로 짹을 찾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제 자전거는 본래의 명품 브롬톤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상태로 잘 타고 있습니다. 때론 묵은 단호박 상자를 이고 있어도 못 본 척 지나칩니다. 장인어른께서 무슨 생각으로 브롬톤을 사셨는지는 아직도 알 수 없지만, 저는 유산으로 제

게 굴러온 브롬톤을 장인어른의 꿈과 로망, 이상향으로 고이 간직하기보다는 깨지고, 다치고, 흠집이 나더라도 마구 사용하면서 일상의 온갖 경험을 함께할 수 있는 길을 달리 게 하자고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달리다가 제가 다시 아이들에게 전해주면 브롬톤은 어쩌면 아이들 손에 남아나지 않아서 명품의 흔적이라곤 조금도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로 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 해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아이들과 자전거도 더 많이 타리라’고 후회하는 인생은 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장인어른이 생전에 실천하지는 못했지만 명품 자전거 브롬톤을 구입할 때 마음 속에 그렸던 궁극의 행복한 상상이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 장다운

회사를 그만둔 후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자, 문화예술 관련 책 편집자 등 여러 일을 전전하면서 내가 하는 주된 일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는 데 다소 혼란을 겪었습니다. 요즘엔 ‘콘텐츠 디벨로퍼(Contents Developer)’라는 말로 다소 거창하게 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 CULTURE GALLERY

쉼표는 쉼과 동시에 이어짐을 뜻합니다.  
일년의 반이 지나간 여름의 쉼표,  
휴가는 쉼과 함께 이어질 나날을 위함이죠.  
시원한 휴식과 함께 2016년을  
새로이 계획하는 여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 불필요한 가계지출을 막아라 세금·공과금 절약노하우

저금리, 저성장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과금, 세금 등을 알뜰살뜰 절약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티끌 모아 태산이듯 조금만 신경쓰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가정 경제에 보탬 수 있을 것이다.

글 · 이경숙

###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 절약하기

다양한 방법과 제도를 활용하면 각종 세금도 소소하게 줄일 수 있다.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주민세, 재산세 등은 납부기간을 넘기는 경우 3% 가산금이 붙으니 절대 체납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종이고지서 대신 이메일 등의 전자고지나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일정금액을 추가로 할인해 주기도 한다.

**자동차세** |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일시에 납부할 경우 총 세금액의 최대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연초에 발송되는 연납고지서를 확인해 2월 1일까지 납부하고 연납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 1월 16~30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청에 연납신청을 하면 된다. 연납이 힘들 경우 분납신청(3월 16~31일, 9월 16~30일)을 하면 할인 혜택은 없어도 세금 부담을 줄이며 나눠낼 수 있다. 중간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더라도 실제 보유일수만큼 자동차세를 계산, 미리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차량소지자에게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역시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일시에 납부할 경우 10% 할인받을 수 있다. 해당 주소지의 환경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하면 별도의 고지서나 납부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재산세** |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내야한다. 재산세는 할인 혜택은 없지만 과세기준일 당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만큼 매년 6월 1일인 과세기준일을 기억해 거래를 하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주택을 매수할 경우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도록 계약하고 반대로 매도하는 경우 6월 1일까지 잔금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 하루 차이로 재산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재산세는 대상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크고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납기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세가 30만 원이 넘는 경우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체납된 세금의 1.2%씩 최대 60개월까지 증가산금이 부과되어 심각한 지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재산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다.

### 똑똑하게 생활 공과금 줄이기

각종 생활 공과금은 귀찮아서 혹은 대상자인지 몰라서 할인을 받지 못하는 일이 흔하다. 기본적으로 모든 공과금은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일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부분의 공과금의 경우 자동납부를 신청하거나 청구서를 이메일 또는 모바일로 받을 경우 일정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 누진세 부담이 큰 전기세는 주민등록상 5인 이상의 대가족이거나 3자녀 이상인 경우 '대가족요금제'나 '3자녀가구요금'을 신청하면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대가족요금제는 월 301~600kWh 사이 전기사용량에 대하여 누진단계를 한 단계 낮춰서 적용(월간 전기사용량 300kWh 이하인 경우 적용 안됨)되는 것으로 월 12,0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인 가구 역시 매월 전기요금 20%를 할인(월 12,000원 한도)받을 수 있는데 대가족요금 할인금액이 큰 경우 대가족 할인 요금이 적용된다. 인터넷 한전사이버자점(cyber.kepco.co.kr)이나 자사 방문, 고객센터(123)에 신청하면 되고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세가 포함되는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고객번호를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도시가스** | 요금 전기세와 마찬가지로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용(취사, 난방), 공동주택 중앙난방(중앙난방세대는 난방 사용료만 할인)에 적용되며 취사 전용은 월 420원, 취사·난방은 동절기(12~3월)는 6,000원, 기타월에는 1,650원을 정액 할인 받을 수 있다. 해당 주민센터에 증명서를 제출해 신청하며 중앙난방 사용세대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경감신청을 하면 된다.

**상수도** | 요금 검침원이 직접 수도계량기를 검침해 부과하는 상수도 요금은 스스로 수도계량을 체크할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자가 검침'을 할 경우 1회 600원(연 3,600원) 감면 혜택을 주는데, 수도계량기 지침을 확인 후 해당 지역의 상수도사업소로 신청하면 된다. 가입대상은 가정용(구경40mm 이하만 가능) 급수사용자 또는 일반용 급수사용자 중 오피스텔 내 호별로 수전 분리된 수도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한 다가구 주택에 살면서 1개의 계량기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세대별 분할제도를 신청하면 누진세로 인한 요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상수도요금 가구분할은 영수증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Tip. 아파트 관리비 도우미,  
**APTi(www.apti.co.kr)**

아파트아이는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비를 조회하고 잡자고 있는 포인트, 상품권 등을 이용해 아파트 관리비를 결제할 수 있는 사이트다. 아파트아이 제휴사들의 포인트를 '아파트캐시'로 전환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고 각종 이벤트를 통해 관리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 90% 이상의 아파트가 아파트아이의 전산업체와 연계돼 있지만 가입 전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인지 확인한다. 전기, 수도, 가스 등 항목별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 파악할 수 있어 생활비 절감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스마트폰과 시계의 만남 스마트 워치

스마트폰 시장이 원숙해지면서 웨어러블 기기들 역시 서서히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 그중 소비자들에게 가장 거부감 없이 수용되는 제품은 스마트워치다. 무선통신 기능을 갖춰 블루투스와 와이파이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와 연동되는 손목시계, 스마트워치는 최근 클래식한 시계 디자인을 따르면서 더욱 대중화되고 있다. 또한 기존 시계 브랜드들이 자체적으로 스마트워치를 출시하는 등, 스마트워치는 손목시계의 한 종류로 시장을 넓히는 중이다.



### 애플 워치

부드러운 모서리의 아이폰 디자인을 따르는 애플 워치는 두 종류의 케이스 크기와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로즈골드, 골드 등으로 컬러를 달리한 알루미늄 케이스, 스테인레스 스틸 케이스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여기에 손목을 감싸는 밴드의 종류는 고르기 어려울 정도로 컬러와 소재가 다양한데, 에르메스와 콜라보레이션으로 종류를 추가하여 ‘어떤 스타일에도 어울리게’ 한다는 디자인 소개가 무색하지 않다. 애플의 많은 팬 덕에 외부 액세서리 제조업체들이 개성적으로 디자인한 밴드로 나만의 멋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최근 공개된 애플 워치 OS3 프리뷰에 따르면 가을에 공개될 애플 워치 OS3는 더 많은 앱을 시계 페이스에서 바로 구동할 수 있게 하며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Breath 앱도 제공한다고 한다. 활력을 전하고, 손목을 들어올리면 바로 메세지를 전하는 것 역시 시각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편리한 기능이다.



### 파슬의 2016 Q 시리즈

파슬은 <스위스 바젤월드 2016>에서 더 슬림해진 안드로이드웨어 스마트워치를 발표했다. 이로써 파슬의 Q라인에는 패션과 기능성이 더욱 완벽하게 기미되었다. 안드로이드웨어로 구동되는 Q원더와 Q마샬은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와 세련된 금속 및 클래식한 가죽이 돋보이는 스마트워치다. 고객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44mm에서 46mm로 커진 케이스 안의 디스플레이는 늘 커져 있어 중요한 정보를 언제나 알 수 있으며 스크린을 가볍게 두드려거나 음성 명령을 하여 기능을 수행시킬 수 있다. 부드러운 곡선미를 느낄 수 있는 Q원더, 굽곡진 케이스에서 아날로그 시계의 감성이 돋보이는 Q마샬은 올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출시될 예정. 이외에도 파슬은 다양한 스마트워치들을 선보이고 있다.



### LG 워치 어베인

44.5mm 화면에 더욱 선명한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는 LG워치 어베인 세컨드 에디션은 세계 최초 안드로이드웨어 LTE스마트워치를 표방한다. 안드로이드 4.3 버전 및 iOS(아이폰) 8.2 이상의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은 천연 소가죽을 입힌 러버 밴드 소재가 활동적이고도 클래식한 이미지를 전한다. 디스플레이 옆에 위치한 세 개의 버튼 역시 아날로그 시계를 떠올리게 하는데, 이 버튼은 주소록 즐겨찾기, 메뉴와 화면 전환 등을 편리하게 도와준다. 24시간 내내 화면이 꺼지지 않는 올웨이즈 온 기능 역시 스마트워치를 일반 시계처럼 보이게 하는 데 일조한다. 2개의 번호를 하나의 디바이스로 이용할 수 있어 핵심전화 서비스에 유용하며 구글지도와 기본 음성 명령, 음성 번역 기능과 함께 카카오톡 등이 자체 설치되어 있다.



### 삼성 기어 S2 클래식 프리미엄

기어 S2, 기어 S2 클래식, 기어 S2 클래식 프리미엄까지 점점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옮겨오는 삼성 스마트워치들의 가장 큰 특징은 원형 훌이다. 시계 페이스를 감싸는 원형 훌은 한 칸씩 돌리는 아날로그의 직관적인 편리함을 차용하여 다양한 앱을 간편하게 선택하게 하는 동시에 클래식한 디자인을 완성시켰다. 국제 보호 규격 IP68등급의 방진, 방수 기능으로 수심 1.5m, 30분 이내의 일시적 침수에 대해 방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호환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티머니 기어 서비스로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별도의 플러그에 꽂아 둘 필요 없이 충전 패드에 올려 두면 무선 충전 방식으로 간단히 충전할 수 있으며 페리스의 디자인은 다양한 타입으로 설정 가능하다. 기어 S2 프리미엄의 경우 플래티넘과 로즈골드, 블랙의 세 가지 컬러가 나와 있다.

### SMART WATCH

# 모기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여름밤이 힘든 이유는 열대야 때문만이 아니다. 더위 때문에 이리저리 뒤큙이다 가까스로 눈을 붙이려 하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에앵~' 소리! 어두운 방에서 내 몸 언저리를 맴도는 모기 소리는 영화 <조스>의 음향 못지 않은 공포심을 자아낸다. 몇 번이나 불을 켜고 모기와 싸워하는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 엄습하는 간지럼증은 또 얼마나 성가신가 말이다. 좀더 쾌적한 여름밤을 위해 모기에 대처하는 각종 방법을 모아 보았다.

자료 출처 · 서울시 모기예보



## 서울시 모기예보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였다. 모기에 대해 알면 모기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서울시에서는 2014년부터 모기예보제를 통해 모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모기예보제란 서울 지역 모기발생 상황을 지수화하여 단계별 시민행동요령을 알려주는 일일 모기발생 예보 서비스다. 쾌적단계, 관심단계, 주의단계, 불쾌단계 등 총 4단계로 발령하는데 예를 들어 3단계의 경우는 집안으로 침입하는 모기가 하룻밤에 2~4마리로 목격되고 야간 운동 후에 10~15분 정도 정지 상태로 머무를 경우, 3~4마리의 모기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모기예보는 이에 대한 적극적 행동으로 화분이나 양동이, 반려동물 식기 등에 물이 오래 고여있지 않도록 비우고 문질러 닦으며 뒤집어 놓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야간 활동 시 어린이는 어린이 전용의 모기피제를 꼭 사용해야 한다.

## 물리기 전 예방부터

모기에 물리지 않으려면 일단 피부에 붙는 것보다는 느슨한 옷으로 몸을 방어해 주는 게 좋다. 빨강, 노랑 등 선명한 색상은 곤충을 유인하므로 가벼운 색상을 선택하여 어두운 색보다 밝은색으로 태양열 흡수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향이 강한 화장품과 향수도 피하자. 모기는 인체에서 방출되는 열에 이끌리니 체온을 낮게 유지하도록 한다. 특히 어린이는 신진대사활동이 활발하여 체온이 높아지기 쉬우니 유모차에는 꼭 모기장을 써우고 손과 얼굴을 피해 모기피제를 뿌려준다. 모기는 계피, 레몬, 토마토 냄새를 싫어한다. 물에 씻어 바싹 말린 통계피를 묶어 창문과 출입구에 걸어 두자. 말린 레몬 껍질을 돌돌이 모기향처럼 태우거나 레몬즙을 직접 몸에 바르는 것도 효과가 있다. 마침 캠핑을 갔는데, 바르는 모기약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남은 토마토를 즙 내어 발라도 좋다! 토마토의 토마틴은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 다 쓴 모기향 매트에 라벤더 오일이나 페퍼민트 오일 등을 두 세 방울 뿌려 훈증하면 천연 퇴치제가 될 것이다.

## 모기를 쳓는 다양한 방법

여름이면 꼭 사놓는 전자모기향은 곤충의 신경계를 마비시키는 피레스로이드계 화합물을 훈증시켜 모기를 쳓거나 살충한다. 비교적 독성이 적은 화합물질이지만 독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기에 꼭 창문을 열고 사용하고, 액체의 경우 손에 묻지 않도록 하는 등 주의사항을 충실히 지켜 사용하자. 요즘은 화학적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이산화탄소나 특정 자외선으로 모기를 유인, 포획한 후 말려 살충하는 모기퇴치기, 모기가 싫어하는 초음파 소리를 발생시켜 쳓아내는 제품과 애플리케이션 등도 나와 있다. 그러나 세상에 모기는 많고, 이 모든 퇴치 방법이 모든 모기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뭐니뭐니해도 가장 안전한 물리적 방법은 튼튼하고 미세한 방충망과 모기장, 특히 2중 모기장이다.

## 모기에게 물리고 나면

특정한 질병을 옮기는 것이 모기의 가장 큰 문제이지만, 일상적으로는 '간지러움'을 남기는 것이 성가신 문제다. 모기가 피를 빨며 인간의 몸에 주입한 모기 침은 포름산을 인체에 남긴다. 인체는 이로 인한 감염을 막기 위해 히스타민을 분비, 이것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가려움증이 생기는 것이다. 가려움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물린 부위를 깨끗이 씻고 따뜻한 수건으로 해독을 하자. 포름산은 48도 이상에서 자연스레 해독된다.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끄낸 숟가락 끝면으로 물린 부위를 천천히 눌러주는 것도 좋다. 열을 가하면 물린 부위에 있는 단백질이 변성되어 다른 부분으로 염증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다. 단백질 분해 시간을 위해 15초 정도 유지한다. 얼음팩으로 누르고 굽는 것은 2차 감염이 될 수 있으므로 하지 않는다. 만약 가려움증 외에 발열이나 두통, 현기증, 근육통증, 구토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를 찾아야 한다.



## 컬러로 즐기는 주스

시원한 한 잔을 찾게 되는 여름이다. 쌥쌀한 향에 얼음 가득한 아이스크피도 좋고, 입천장을 짜릿하게 두드려 주는 탄산음료도 좋다. 그리고 하나, 결코 빠뜨려선 안될 음료가 있다. 신선한 과일과 야채로 만드는 주스! 다양한 맛과 영양에 포만감까지 제공해 때로는 에너지 드링크로, 식사 대용으로도 활용되는 주스는 기력을 잃기 쉬운 여름에 꼭 챙겨야 할 음료다. 최근 디톡스 다이어트 음료도도 각광받는 주스, 집에서 간단히 만들어 보자. 휘리릭 믹서에 갈아 만드는 100가지 주스 레시피를 담은 책『JUICE주스』를 통해 소개한다.

자료 제공 ·『JUICE주스』, 도서출판 도도



### 부드러운 연노랑의 오후 황도 밀크

눈에 좋은 비타민 A와 칼슘, 유기산이 많은 황도는 성장기 아이들을 위한 여름철 간식으로 좋다. 아이스크림과 함께 즐기면 부드럽고도 신선한 간식이 된다.

**재료** 380ml 분량 \_ 통조림 황도 2쪽(또는 황도 1개), 물 1컵, 얼음 2~3개, 아이스크림(딸기맛) 50g

**하나.** 통조림 황도는 길게 3등분 한 뒤 반 자른다.

**둘.** 믹서에 황도와 물, 얼음을 넣어 곱게 간다.

**셋.** 컵에 황도 주스를 붓고 주스 위에 아이스크림을 올린다.



### 노랑, 주황, 빨강, 3색의 하모니 트리플 시트러스 주스

레몬, 오렌지, 자몽의 비타민이 가득해 하루의 피곤함을 달래 주는 주스다. 칼로리가 낮아 저녁에 마셔도 살찔 걱정이 없다. 껍질 벗긴 과육을 갈아 마시면 영양이 더 풍부해진다.

**재료** 230ml 분량 \_ 오렌지, 자몽, 레몬 1/2개씩, 얼음 적당량

**하나.** 오렌지와 자몽, 레몬은 각각 스펀저로 즙을 내고 껍질에 남은 과육은 숟가락으로 긁어낸다. 씨는 모두 발라낸다.

**둘.** 컵에 얼음을 담고 01의 과즙과 과육을 모두 섞어 마신다.



### 뽀빠이 힘이 솟아나는 초록 천도복숭아 바나나 시금치 주스

천도복숭아의 껍질에 들어있는 성분은 해독 작용을 한다. 천도복숭아의 신맛과 바나나의 달콤함, 시금치의 무기질이 어우러진 영양 만점 여름 주스다. 기호에 따라 레몬 껍질을 조금 넣으면 레몬 향이 더해져 한결 상큼하다.

**재료** 250ml 분량 \_ 천도복숭아 1개, 바나나 1/2개, 시금치 2포기, 레몬 1/4개, 물 1/2컵

**하나.** 천도복숭아는 깨끗이 씻고 껍질째 반 갈라 씨를 제거한 뒤 한 입 크기로 썬다.

**둘.** 바나나는 껍질을 벗겨 똑똑 떼어내거나 2~3cm 길이로 썬다.

**셋.** 시금치는 뿌리를 잘라내고 깨끗이 씻어 물기를 턴 뒤 2cm 길이로 썬다.

**넷.** 레몬은 껍질을 벗기고 반으로 절라 씨를 발라낸다.

**다섯.** 믹서에 레몬과 천도복숭아를 먼저 넣고 시금치와 바나나 순으로 넣은 뒤 물을 부어 곱게 간다.



## 오렌지 없이 오렌지 컬러 당근 양상추 사과 주스

붉은 색소인 카로틴을 함유한 당근과 담황색 사과는 맛과 영양 면에서 궁합이 좋은 재료다. 여기에 수분이 많은 양상추를 더하면 신선힘을 살리면서 무더운 여름의 갈증 해소에 좋은 음료가 된다. 사과 주스 대신 씨를 제거한 사과 반 개와 물 1/2 컵을 넣어도 좋다.

**재료** 300ml 분량 \_ 당근 1/2개, 양상추 잎 1장,  
시판 100% 사과 주스 1컵, 얼음 1~2개

하나. 당근은 깨끗이 씻어 채칼을 이용해 채 썬다.

둘. 양상추 잎은 길게 4등분을 해 듬성듬성 썬다.

셋. 믹서에 당근과 양상추 잎, 얼음을 넣고 사과 주스를 부어  
곱게 간다.



## 레드와인 빛깔의 시원한 유혹 적양배추 파인애플 오렌지 주스

파인애플은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 양배추와 함께 갈아 식후에 마시면 좋다. 오렌지는 깊지 않고 즙은 짜 넣으면 적양배추 고유의 맛과 향을 더욱 살린다. 파인애플은 쉽게 상할 수 있으니 마시기 직전에 주스를 만들자.

**재료** 250ml 분량 \_ 적양배추 잎 2장, 오렌지 1개, 파인애플 렇  
(2cm 두께) 1/3개, 레몬즙과 꿀 1큰술씩, 물 1/2컵

하나. 적양배추 잎은 길게 4등분 한 뒤 2~3cm 폭으로 썬다.

둘. 오렌지는 반 갈라 스퀴저로 즙을 내고 파인애플은 적당한 크기로  
뚝뚝 썬다.

셋. 믹서에 모든 재료를 넣고 곱게 간다.



Tip.

## 주스, 맛있고 건강하게 만들기

### 착즙기보다 믹서!

과일과 채소의 영양을 온전히 얻으려면 믹서를 이용하자. 착즙기는 과육을 제외한 즙만 섭취하게 되므로 과육의 섬유질과 영양을 많이 섭취할 수 없다.

### 수분이 많은 과일부터 믹서에 넣자

채소와 과일을 갈 때 바나나처럼 수분이 적은 과일이나 채소를 먼저 넣으면 믹서 칼날이 잘 회전하지 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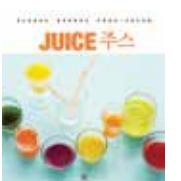
한다. 믹서의 회전을 위해 물을 자꾸 넣다 보면 결국 맛이 싱거워진다. 믹서의 회전력을 위해 수분이 많은 과일부터 넣자.

### 소금으로 과일 본연의 단맛을 이끌어낸다

수박이나 토마토 주스를 만들 때 단맛이 적어 싱겁게 느껴진다면 설탕 대신 소금을 약간 넣어 단맛을 살린다. 소금은 짠맛이 느껴지지 않게 약간만 넣고, 꼭 설탕이 필요하다면 꿀로 대체해 건강한 주스를 만들자.

### 채소 주스는 레몬즙으로 끓내를 없앤다

대부분의 잎채소는 믹서에 갈면 어느 정도 끓내가 나게 마련이다. 이때 레몬즙을 조금 넣으면 새콤함과 향긋함이 끓내를 없애고 맛도 업그레이드된다.



### 『JUICE 주스』

도서출판 도도, 14,800원

푸드스타일리스트이자 요리연구가인 김상영 씨가 쓰고, 이지쿡 대표인 이미남 씨가 감수한 「JUICE 주스」는 채소와 과일로 손쉽게 만드는 100가지 주스 레시피와 함께 주스 만드는 노하우를 알려준다. 여러 가지 주스를 활용한 요리 레시피도 특별한 디저트에 제격이다. 「JUICE 주스」가 있다면 여름의 매일매일이 신선할 듯하다.



## 하나됨을 위한 젊은 소통, 노루이음

### NOROO 그룹 조직문화기구, 노루이음 창단식

지난 5월 27일, 노루이음의 창단식과 첫 회의가 있던 날, (주)노루홀딩스의 대회의실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노루인들의 만남으로 활기를 띠었다. 멀리는 포항에서부터 가까이는 화성과 안산, 인양 등에서 올라온 노루이음 1기들은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포부를 밝히며 앞으로의 각오를 다졌다. 조용했던 대회의실로부터 들려오는 웃음 소리와 박수 소리는 노루이음의 기분 좋은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 소통하고 싶은 마음들이 모이다

“앞으로 1년 동안 노루 그룹의 조직 문화를 위해 함께 활동해 갈 노루이음에 선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노루 그룹은 71년의 역사 속에 소탈하고 가족적인 문화를 사랑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활력이 넘치고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대한 특별한 애정으로 노루이음에 지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위해 앞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노루홀딩스 윤리경영실 한원석 상무의 인사말로 노루이

음 첫 모임은 시작되었다. 처음 만나 서로 조금은 긴장되고 어색했던 대회의실의 공기는 인사말에 담긴 반가움과 함께 모임의 이유, 역할에 대한 고민으로 환기되었다. 그 고민은 노루이음 1기의 자기소개에서도 드러났다. 한원석 상무의 임명장과 배지 수여 후, 회의 순서는 (주)노루홀딩스 윤리경영실 박오영 대리의 진행에 따라 자기 소개로 넘어갔는데, 14명의 노루이음 1기들이 말한 노루이음의 여러 지원 이유 중 공통된 것이 다른 계열사, 다른 근무지 분들과 만날 수 있다는 기대였다. 그만큼 그동안은 서로 소통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뜻이리라. 1기들 대부분은 “일하다 보



왼쪽부터 정영희 대리, 박성근 대리, 장현경 대리, 조국연 대리, 현준 대리, 김지수 대리

면 여러 계열사 분들과 연락을 하게 되지만, 얼굴을 모르는 채로 일만 하니 뭔가 형식적이고 아쉬웠다”거나 “입사할 때만 해도 멀리 떨어져 있는 공장끼리 교류가 있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서로 너무 모른다”고 아쉬움을 이야기했다. 보수적인 회사 문화를 조금씩 변화시켜가는 데 일조하고 싶다는 이도, 늘 ‘을’로 일하다가 강남의 높은 건물에서 NOROO 글자를 보니 뭔가 마음이 든든하다는 이도 있었다. 짚고 활기찬 문화로의 변화를 바라는 마음, 교류를 바라는 마음, 같은 NOROO인임을 느낄 때 든든해지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모여 이어진 자리가 바로 노루이음의 첫 회의였다.

#### 마음을 이어 100년 NOROO로

자기소개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노루이음 1기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회의를 이어나갔다. 박오영 대리는 노루이음이 열린 소통의 자리로 직급이 없으며 모든 구성원이 똑같은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고 강조하는 한편, 엄청난 성과보다는 조금씩 더 의미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자며 회의를 편안하게 이끌었다. 이에 노루이음 1기들은 일하기 좋은 회사에 대한 고민, NOROO인이 느끼는 NOROO문화, 경영진 초대 담화와 멘토링 제도 등 윤리경영실에서 준비한 연간계획에 담긴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왼쪽부터 권기훈 대리, 박인 대리, 오세윤 대리, 양홍준 대리, 최병두 과장, 이재호 과장, 한승남 대리, 이동준 대리

의견을 나누고, 시기를 조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회의 중에 ‘인사의 인색함’에 대한 아쉬움을 공유하면서 일단 노루이음 1기부터 얼굴 마주치는 이에게 정겨운 인사를 나누자고 다짐하기도 했다. 성장의 역사가 이어져 오면서 계열사가 늘고, 회사 규모가 커지다 보니 이제는 한 건물에서 일하는 이들도 서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회사의 성장 곡선에 따라 사우들의 애사심이 정점에 이를 때도 있지만 불만을 가질 때도 있었다. 하지만 ‘NOROO’라는 이름으로 모인 마음이 토로되고 생각이 공유되며 해결책을 도모한다면, 그리고 서로 활

기찬 인사를 건네며 같은 NOROO 가족임을 늘 생각한다면 NOROO는 71세는 물론, 100세까지도 상생의 생명력을 쉽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과 마음을 이어야 한다. 그것이 노루이음의 이유고, 목표다. 이제 첫 발을 내딛는 노루이음 1기의 활동에 모든 NOROO인들의 응원과 참여를 기대한다. 일단, 낮 모르는 이가 밝게 인사를 해 온다면 반갑게 받아주고, 즐겁게 돌려주는 것부터 시작해 보자.



## 함께하는 마음이 반짝반짝

### (주)노루페인트와 푸른산업의 성덕원 페인팅 후원

따가운 햇살이 그만큼 시원한 그늘을 만드는 초여름, 다도해를 바라보는 목포 유달산 품 안에 위치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쉬는 시간을 맞아 맑은 햇살같은 웃음과 함께 학생들이 와글와글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즐거운 소란을 뒤로 하면,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들을 다정하게 기다리는 환한 건물을 만날 수 있다. (주)노루페인트와 목포의 특약점 푸른산업이 새롭게 단장한 목포 성덕원이다.

### 65명의 집, 성덕원

성덕원의 외벽은 깔끔한 흰색과 밝은 주황, 연두로 초여름의 햇빛에 유난히 반짝였다. 건물의 위쪽과 입구는 진한 코발트색으로 단단하게 라인이 잡혀서 세련된 느낌을 더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월의 때에 군데군데 얼룩져 본래의 흰 벽을 잊었던 건물이 산뜻해져서 보는 이들의 기분까지 상쾌하다. 이는 (주)노루페인트가 페인트를 지원하고 푸른산업의 일손들이 꼼꼼히 거들어 만들어낸 결과다. 그 아름다운 협력의 시작에는 이경숙 성덕원 원장의 열정이 있었다. “건물이 정말 예쁘다고 방문하시는 분마다 감탄하세요. 가장 좋아하는 건 저희 아이들이고요”라고 말하는 이경숙 원장의 눈길이 마치 사랑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듯 건물을 향한다.

기독교 정신으로 전쟁고아들을 키우기 위해 1952년 설립된 아래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정 삼아온 성덕원에는 현재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모두 65명이 생활하고 23명의 직원이 일한다. 설립자의 딸로 성덕원의 원생들과 함께 자라고, 바로 옆의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자로 오랜 세월 일한 후 지난 2013년 성덕원 원장으로 취임한 이경숙 씨에게 성덕원은 자신의 집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낙후된 건물이 더욱 마음에 걸렸다. 이 원장이 주변에서 추천 받은 노루페인트 특약점에 보수를 문의해 보니 꽤 큰 견적이 나왔고, 작은 지방 도시에서 받는 지원금 외에 운영비 대부분을 개인 후원금에 의지하는 터라 그 큰 돈을 선뜻 쓰기는 어려웠다.

입니다.

성덕원의 외벽은 깔끔한 흰색과  
밝은 주황, 연두로 초여름의 햇빛에 유난히 반짝였다.  
건물의 위쪽과 입구는 진한 코발트색으로  
단단하게 라인이 잡혀서 세련된 느낌을 더한다.



기독교 정신으로  
전쟁고아들을 키우기 위해  
1952년 설립된 이래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정 심어온 성덕원에는  
현재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모두 65명이 생활하고  
23명의 직원이 일한다.



### 성덕원의 작은 도전

그때, 이경숙 원장은 노루페인트에 직접 도움을 요청해 보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주변에선 설마 후원이 되겠냐고 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아 보자는 심정이었죠. 그런데 회신이 바로 왔지요. 정말 기쁜 순간이었어요.” 노루페인트는 페인트 지원을 약속하며 혹시 목포 지역에서 이를 도울만한 특약점이 있는지를 광주 지점의 고우리 주임에게 문의했다. 그리고 고우리 주임이 떠올린 곳이 바로 푸른산업. 우연히도 앞서 이경숙 원장이 견적을 받았던 곳이었다. 푸른산업 조성식 사장은 돌고 돌아 사회공헌 사업으로서 성덕원 페인팅 작업을 다시 만나자, 바로 받아들였다. 덥석 승낙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을 묻자, 말수 적은 사장은 대답의 반을 웃음으로 넘긴다.

“글쎄… 그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싶었지요.” 대답은 느슨했지만 조 사장이 10여 일 동안 해낸 일은 녹록치 않았다. 노후된 외벽은 상당한 노동의 전처리를 요구했고, 경사가 가파른 산자락에 위치한 텃에 작업 차량이 들어오지 못해 2층 건물을 줄 타고 작업해야 했다. 작업량이 늘며 예정했던 최소 인건비도, 페인트 물량도 초과되었다. 그러나 꼼꼼한 이원장과 완벽을 기하는 조 사장, 끝까지 물량을 맞춘 노루페인트의 합심으로 성덕원은 화사한 모습으로 태어났다. 이 원장은 노루페인트와 푸른산업 덕분에 더욱 멋진 건물이 되었다며 거듭 감사의 인사를 했다. “아이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어요. 도전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도움을 받은 만큼 커서 우리도 누군가를 돋는 사람이 되자고요. 명절이면 이곳을 찾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아름다운 모범이 될 거라 믿어요.” 주변에 온기를 전하는 이경숙 원장의 함박웃음과 직원들의 활기찬 웃음이 성덕원에 울려 퍼져 건물의 컬러가 더욱 반짝이는 듯하다.

## 이웃과 함께 크는 푸른산업

목포시 상동 선응사 앞길에 위치한 푸른산업에 들어서니, 갈색 푸들 '꼬마'가 반갑게 맞아준다. 길모퉁이에 접해 두 면이 모두 통창인 가게는 해가 들어 밝은 데다가 길 건너로는 산등성이의 조경이 싱그럽다. 가게 안은 PANTONE Premium Paints로 산뜻하게 컬러링되어 마치 카페의 배경을 보는 듯했고, 은은한 향초 향이 가득했다.



경쟁이 치열한 목포 시장에서 5년 동안 사업을 기운 조 사장에 대해 고우리 주임은 '지략과 성실을 겸비한 분'이라 말했다.

### 성실함과 우직함으로

목포에서 제일가는 페인트 업체에서 10년 동안 일하며 현장을 익힌 조성식 사장이 5년 전 개업한 노루페인트 특약점, 푸른산업은 페인트 성수기인 요즘 무척 바쁘다. 성덕원 페인팅 작업이 그나마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4월 초에 마무리된 것이 다행이라고 조 사장은 말한다. 바쁜 와중에도 조 사장이 성덕원 일을 맡았던 것은 그의 과거 때문이었다. 성덕원 바로 옆에 위치한 덕인고교 졸업생이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학교 쪽 공사를 몇 번 하면서 그의 완벽한 일처리를 알게 된 관계자가 이경숙 원장에게 푸른산업을 소개한 게다. 철저한 작업 준비와 마무리를 위해 새벽잠과 주말의 여유를 포기하고 조 사장은 성실함과 우직함으로 목포에서 차근차근 푸른산업을 일구어 입소문을 내 왔다. 그리고 1년 전, 기존의 매장보다 4배 넓혀 지금의 매장으로 확장 이전했다.

"가게 앞길이 근처 큰길로 나가는 지름길이라 출퇴근 때마다 엄청나게 막힙니다. 그러면서 저희 가게가 자연스럽게 홍보되는 최적의 장소죠." 주변 사람들은 하필 왜 뒷길 쪽에 가게를 내느냐 했지만, 조 사장만의 지략은 적중했다. 눈에 띠는 데다가 주차가 편하고 가게 분위기도 쾌적하니 공사 물량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점점 늘어났다. 조 사

장은 도배지 위에 칠할 용도로 사가는 손님들이 많다면서 PANTONE Premium Paints에 대한 반응이 좋다고 말한다. "저 역시 타사 것을 많이 써봤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브랜드가 노루였거든요. 친환경적인 면으로도 고객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 전략과 정성으로

고우리 주임은 경쟁이 치열한 목포 시장에서 5년 동안 사업을 기운 조 사장에 대해 '지략과 성실을 겸비한 분'이라 말한다. "새로운 사업 아이템에도 주저 않고 뛰어드시는 분이죠. 지금도 소매 쪽으로 사업을 넓힐 궁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의 말대로 조 사장은 DIY 샘플 작업이 가능한 공방형 매장을 고민 중이다. 손님들이 페인트를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그동안은 사업을 자리잡게 하느라 바빴는데 이제 주변을 조금씩 돌아보면서 목표를 향해가려 합니다. 성덕원 작업도 그래서 가능했고요." 공사는 물론, 판매에서도 목포 제1의 특약점이 되겠다는 조성식 사장의 목표가 욕심으로 느껴지지 않는 건 그의 넉넉한 마음 덕분이다. 함께하려는 그의 마음은 소비자를 위한 공방을,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은 성덕원과 같은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 테니까 말이다.

## 패러글라이딩으로 도전을 연습하다

(주)노루크로비스 지일신 주임

바람을 확인하고, 안전을 점검하고, 목표 지점을 향해 몸을 내던진다. 바람에 몸을 맡긴 이상 되돌아갈 수는 없다. 목표 지점을 향해 바람에 몸을 맡기고 최선을 다해야 할 뿐. 패러글라이딩은 어쩌면 목표를 향해 가는 모든 여정을 닮았다. 패러글라이딩의 준비와 확인과 돌진, 그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도전을 연습하는 (주)노루크로비스의 지일신 주임을 만났다.



### 협력과 노력으로 날아오르다

취미활동은 일상에 활력을 주고 자기 안에 숨은 능력을 활기시켜 자기 개발을 돋운다. 또, 새로운 인간관계를 넓혀 주기도 한다. NOROO인들은 어떤 취미활동으로 '나'를 일깨울까? (주)노루크로비스의 지일신 주임은 하늘을 향해 온몸을 던지는 패러글라이딩을 선택했다.

“대학교 3학년 때 패러글라이딩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하늘을 난다는 것에 꽂혀서 신입생도 아닌데 가입시켜 달라고 졸랐죠. 운동신경이 좋으면 한 두달만에도 비행이 가능하지만 제 지상연습은 6개월을 끌었습니다.”

패러글라이딩은 20Kg이 넘는 장비를 메고 기체를 끌며 달리는 지상연습이 먼저다. 바람이 몸에 익을 때까지 지일신 주임은 계속 달렸다. 온몸에 멍이 들어 한여름에도 긴 팔만 입어야 했다. 함께 시작한 이들이 속속 비행에 성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교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았다. 자신의 때가 있다고 믿었고, 바람 좋은 기울, 드디어 하늘을 날았다.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발이 허공을 디뎠고, 어느 순간 제 아래에 모든 것이 있었어요. 귀를 스치는 바람 소리를 느끼며 이게 나는 거구나 싶었죠.” 지일신 주임은 그 순간, 함께해 온 이들을 떠올렸다고 한다. “패러글라이딩은 혼자 할 수 없거든요. 인솔자와 동료들의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감동과 고마움을 느꼈죠.”

패러글라이딩을 통해 배운 것은 협력뿐만이 아니었다. 비행의 성공 경험은 또 다른 도전을 꿈꾸게 했다. 중국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에

이어 캐나다로 워킹홀리데이를, 베트남으로 글로벌 인턴십을 떠나 2년 반 가까이 이국에서 지낸 것은 그로 인한 도전이었다. 그곳에서도 패러글라이딩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했다. “베트남에서도 패러글라이딩 동호회를 통해 현지인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베트남의 문화를 쉽게 배울 수 있었죠.”

패러글라이딩으로 일과 삶의 밸런스를 맞추어 나간다는 지일신 주임. 그에게 새로운 도전 목표를 물었다.

“지금은 제 업무를 통해 도전 중입니다. 노루크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비전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한국 농업의 과학화와 선진화를 이끌고 미래 농업의 가치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어 가는 도전에 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지일신 주임, 그는 오늘도 성공을 향해 뛰고 있다.





## 달콤하게, 싱그럽게 시간을 채우는 향수

(주)노루오토코팅 백현정 과장과 아들 이윤우

서촌의 호젓한 골목, 새벽녘과 저녁의 푸르스름을 닮은 문을 연다. 오래된 나무틀과 거친 벽돌 사이를 지나 투명한 시향 컵을 들어올리면 싱그러운 풀 향기에 어느 해엔가 걸었던 이슬 내린 초록 들판이 펼쳐지고, 늙진하고도 달콤한 냄새에 여름밤의 추억이 떠오른다. 향 안에 추억을 농축하는 향수, 나만의 향수라면 그 추억은 더욱 특별해지지 않을까.

‘조향사의 살롱’이라는 뜻의 살롱 두 파프메는 세 명의 조향사가 만든 공간으로, 그들의 개성적인 향수를 만나는 동시에 수많은 향료들 중에서 고객이 좋아하는 향을 직접 골라 세상에 단 하나뿐인 향수를 만들 수 있도록 돋는 곳이다. 그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된 주인공은 (주)노루오토코팅의 백현정 과장과 8살 아들 이윤우. 백현정 과장은 남편을 위한 향수를, 윤우는 자신이 좋아하는 향으로 첫 향수를 만들어 볼 참이다.

“향수요? 음… 좋은 냄새 나는 거요.” 향수가 뭘까 하는 질문에 8살 윤우의 차분한 대답이다. 향수 만들기 체험을 할 거라는 엄마의 이야기는 향수 병이 깨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당부로 이어졌을 것이다. 탁자 위에 가득한 향료 병을 윤우는 조심스러움과 함께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체험용 탁자에는 60여 가지의 향 베이스가

조  
향  
사  
의  
살  
롱



있습니다. 한꺼번에 시향을 많이 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좋아하는 향 다섯 가지만 먼저 골라 보세요. 윤우는 무슨 향을 가장 좋아하나요?” 조향사 김용진 씨가 친절하게 묻자, 윤우는 멜론 향에 이어 민트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아무래도 아이에게 가장 강렬한 향은 달콤한 과일과 디저트로부터 나왔을 것이다. 김용진 조향사의 도움으로 윤우는 프루티 하모니와 오렌지, 다크 체리와 망고 만다린, 민트 등 달디단 과일 향들을, 백현정 과장은 시원한 바다향의 마린과 금의 상쾌함을 담은 허브 그린, 뱀부, 블루 라벤더 등을 골라 각각의 향을 맡아보며 그 느낌을 직접 조향지에 적었다. 이 과정을 거쳐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향은 어떤 느낌인지를 정의하고, 그에 맞춰 향료의 비율을 정한다. 물론 최종 비율은 조향사가 상담하여 조정해 준다.



드디어 직접 향료를 섞어 보는 순간. 완성용 향수병을 디지털 저울 위에 올리고 스포이드로 베이스 향을 옮겨 섞는 윤우와 백현정 과장의 손놀림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조향사의 도움으로 윤우의 향수가 먼저 완성되자, 스포이드 작업에 재미를 느낀 윤우는 냉큼 엄마를 돋는다. 윤우의 도움으로 드디어 아빠를 위한 향수도 완성! 가볍게 흔들어 시향해 보니 아빠의 향수에서는 숲과 바다를 지나쳐 온 시원한 바



#### 허니와 달코미

람결이, 윤우의 향수에서는 껍질 벗겨 유리 그릇 안에 총총이 담은 과일들이 연상된다. 어디에서도 맙아본 적 없는 향인데도,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힘이 신기하다.  
“2주 후면 향들이 서로 어우러져 더욱 안정적이 될 겁니다. 가급적 1년 안에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김용진 조향사의 설명을 들으며 마지막으로 향수의 이름을 지어 보았다. 수고하는 남편을 위한 ‘허니’, 그리고 달콤함이 가득한 ‘달코미’가 향수병 위에 라벨링되었다. 윤우는 “놀이터 가져가서 친구들한테 뿌려줘도 돼요?”라고 묻는다. 혹시 여자친구에게 뿌려줄 거냐고 엄마가 묻자 말없이 배시시 웃는 얼굴이, 역시 그런가 보다. 모래 가득한 놀이터에 달콤한 향이 채워질 것을 상상하자 덩달아 미소가 지어진다.



#### 추억을 담아 유리병

체험이 진행되면서, 살롱 두 파퓸의 오후는 찾아오는 손님들로 북적였다. 작년 문을 연 살롱 두 파퓸의 세 조향사인 이성민, 김용진, 윤재도 씨는 각각 퍼퓸라이퍼(perfumelifer), 가르니르(Garnir), 루이스(Louis)란 개인 브랜드로 향수들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이성민 조향사는 독립 조향사가 드물던 십년 전부터 독학으로 향수를 공부, 외국 브랜드가 점령한 한국 향수 시장에 개성 있는 향으로 니치 마켓을 열었다. 그리고 후배 조향사들을 위해 그 과정을 견고하게 다지는 중. 니치 마켓이라는 틈에 박힌 들품한 쐐기와도 같은 존재가 바로 살롱 두 파퓸이다. 향수를 고르고 느낄 팬, 명품 로고보다도 자신의 취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고객들이 분명히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용진 조향사가 기존

의 향을 카피하지 말고 자신의 향을 만들어 보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나 보다. 자신의 향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지나간 시간들은 후각으로 살아나기 때문이다. 그 시간들을 모아 유리병에 담은 것이 바로 향수가 된다. 백현정 과장이 사랑으로 담은 허니와 윤우의 달콤한 기억들이 모인 달코미가 그렇듯이.

#### » 살롱 두 파퓸

조향 체험과 향수 구입이 가능한 조향사의 살롱, 살롱 두 파퓸에. 개성 있는 조향사들의 향수를 통해 우주처럼 넓은 향의 면면들을 만날 수 있다. 그 우주에 나의 별 하나도 더해 보자. 내가 만든 향수도 충분히 반짝일 수 있다.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31-1 / 02-6339-1752



## 페인트의 컬러 해결사

### (주)칼라메이트 강동천호점

런던시 베이커가에 범인을 찾아내는 명탐정 홈즈가 산다면, 서울시 송파구의 칼라메이트 강동천호점에는 손님의 취향을 찾아 드리는 '명점장' 황래건 씨가 있다. 손님의 요구가 불분명할 때도, 혹은 까다로운 환경 속의 페인팅 방법을 문의 받을 때도 황래건 점장은 만족스러운 답과 제품을 준비해 낸다. 페인팅에 대해, 컬러에 대해 미해결 문제가 있다면 정확한 추리력을 가진 칼라메이트 강동천호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취향을 찾아 드립니다

칼라메이트 강동천호점은 건축자재상가가 많은 송파구 풍납동에 있다. 이곳은 인테리어 업체와 도장업체는 물론, 근처 잠실과 천호동 쪽의 아파트 단지로부터 찾아오는 일반 소비자 수도 꽤 된다. 근처에 페인트 매장들만 10여 군데 있지만 다양한 컬러와 제품이 필요한 이들은 결국 칼라메이트로 오게 된다는 게 황점장의 설명이다.

"저희 매장에는 다양한 컬러 차트는 물론, 측색기와 조색기가 구비되어 있어서 어떤 샘플을 가져 오셔도 조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저희 매장을 추천하시곤 합니다." 다른 매장을 거쳐 오는 손님이라면, 아무래도 남다른 요구 사항을 가졌을 확률이 높다. 그러나 황래건 점장에게 들어오는 손님의 만족도를 높이고 마는 노하우가 있다.





“쉽지 않은 작업 조건이나 까다로운 시공 방법을 문의하시는 분들께는 칼라메이트 9년차 경력을 통해 쌓은 머리 속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답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시는 손님들도 많습니다. 그러한 손님의 마음을 잘 읽어내고 손님께서 착용하신 옷이나 가방, 핸드폰과 차 등을 살펴서 어떤 컬러를 원하시는지, 또 어울릴지를 유추하여 제안 드리지요.” 이러한 황 점장의 관찰력과 컬러 센스는 손

님의 만족도를 90% 이상 높인다고 한다. “손님의 취향을 제대로 찾아드렸을 때 머리 속에서 전구가 반짝하고 켜지는 느낌을 받아요. 정말 기쁜 순간이죠.”

적중률 높은 그의 컬러 컨설팅은 많은 단골을 만들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시공에 만족하여 다시 찾는 손님은 물론, 황 점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했다가 돌아와 다시 컨설팅을 받는 손님도 있다고 한다.

### 세상의 모든 색을 제공합니다

지난해 리뉴얼한 강동천호점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띠는 것은 길게 놓인 테이블이다. 빈티지 페인팅이 멋진 이 테이블은 컬라메이트에서 취급하는 페인트들로 꾸민 것이다. “편안히 앉아서 여유 있게 페인트와 컬러를 고르시도록 준비한 테이블입니다. 손님들은 도장 중의 실수보다 컬러 선택의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저희의 컬러 컨설팅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도록 디자인한 공간이지요. 샘플 역할도 하고요.”

매장 한 쪽에는 향초와 디퓨저를 진열하여 우아하고도 향기로운 이미지를 더하고, 이벤트 코너에는 300ml 용량의 컬러풀한 PANTONE Premium Paints 및 다양한 색채 도구를 비치하여 눈길을 끈다. 세상의 모든 색을 가져다 놓은 듯 가득 펼쳐진 셔원-윌리암스, 듀렉스, PANTONE Premium Paints의 컬러 차트들 앞에 놓인 테이블에서는 한 달에 두 번, 페인팅 강의가 열린다. 칼라메이트 홈페이지([www.colormate.co.kr](http://www.colormate.co.kr))를 통해 신청을 받는데, 인기가 많아 추가 강의를 만들어야 할 때도 있다.

“예전보다 자신의 공간을 뚜렷하게 컬러화시키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페인트에 대해 먼저 알아보시고 오는 분들도 많아지고요. 앞으로는 궁금증이 더 적어지는 시대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에 대비하기 위해 우린 새로운 아이템과 더 앞선 기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객보다 한 발 앞서 취향을 살피고, 요구를 파악해 내는 황래건 짐작다운 분석과 목표다. 어떤 질문에도 막힘없이 답하는 황 점장의 자부심과 열정은 이제 입사 한 달 된 김무진 사원에게로 조금씩 전해지는 중이다. 두 사람을 만났지만 마치 다섯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듯 넉넉한 그들의 역량은 넓은 매장을 가득 채우고 완벽한 준비 자세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다.



황 점장의 자부심과 열정은  
이제 입사 한 달 된 김무진 사원에게로  
조금씩 전해지는 중이다.  
넉넉한 그들의 역량은  
넓은 매장을 가득 채우고  
완벽한 준비 자세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다.

# News Briefing

## • 뉴스 브리핑



윤리경영실, 2016 임직원 윤리경영 세미나 진행



2016년 NOROO 그룹 신제품/신기술 전시회 개최



(주)노루페인트 안양옹벽디자인 공사 진행



(주)노루페인트 18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상 타결

### (주)노루홀딩스

#### 윤리경영실, 2016 임직원 윤리경영 세미나 진행

(주)노루홀딩스 윤리경영실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총 5주에 걸쳐 NOROO 그룹 국내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2016년 임직원 윤리경영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과 안양, 화성, 천안, 안산, 포승, 포항, 칠서, 광주 등 NOROO 그룹이 위치한 전국의 현장에서 진행되어 해외 파견자를 제외한 국내 임직원 전원이 참여할 수 있었다. 임원 대상 강사는 윤리경영과 반부패 체계 분야의 컨설팅 전문가인 이매니지먼트의 나상억 박사가, 직원 대상 강사는 윤리경영실의 이대규 차장과 박오영 대리가 직접 세미나를 진행하여 그룹의 윤리경영 도입 배경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윤리규범과 영업비밀보호에 대해 꼼꼼히 짚는 시간을 만들었다. 이번 세미나 이후에도 윤리경영실은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윤리경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실천 방안으로 뒷받침하며 윤리경영의 단단한 길을 닦아갈 계획이다.

### 2016년 NOROO 그룹 신제품/신기술 전시회 개최

NOROO 그룹이 주관한 <2016년 신제품/신기술 전시회>가 안양공장 스마트센터 세미나실에서 6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10일간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주)노루홀딩스, (주)노루페인트, (주)노루코일코팅, (주)노루오토코팅, (주)노루비케미칼, (주)노루알앤씨가 참여하여 2016년에 출시하였거나 개발을 진행 중인 33종의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고 전시하였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각 사는 영업 및 기술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더욱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다짐이다.

### (주)노루페인트

#### (주)노루페인트 안양옹벽디자인 공사 진행

(주)노루페인트는 안양 시에서 나리장터를 통해 집행한 안양3동 진

흥아파트 앞 도로의 옹벽 디자인 공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에 성공, 해당 공사를 진행했다. 안양 시 도시재생과는 기존 옹벽에 틈이 생겨 갈라지고 페인트가 벗겨져 도시 미관에 좋지 않다는 판단 하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였다. (주)노루페인트는 밝은 미색을 조화롭게 사용하고 동화책을 펼쳐 놓은 따뜻한 그림을 그려 넓음으로써 거리 풍경을 아름답게 바꾸었다.

#### (주)노루페인트 임직원, 안양6동 노송공원 담장 벽화 참여

지난 5월, 황폐했던 주택가 소공원이 정감 있는 쉼터로 재탄생했다. 안양상공회의소 뒤편에 위치한 안양6동 노송공원 안의 콘크리트 담장이 색동옷으로 갈아 입은 것이다. 이 공원은 평소에 노숙인들과 취객들이 노상방뇨를 하는 등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커져가던 곳이었다. 그러나 이번 벽화로 분위기가 쇄신되어 주민들은 “항상 침침한 콘크리트 담벼락으로 인해 마음까지 우울했는데 동화 속 인물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려져 동네가 전보다 활기찬 것 같다”고 말하는 등 만족을 표했다. 이번 벽화

작업은 안양6동의 자원봉사자들인 V터전과 (주)노루페인트 임직원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벽화 작업에 힘을 보탠 (주)노루페인트는 ‘지역사회 환경개선 놀이터 벽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어 이와도 자연스럽게 연계됐다.

#### (주)노루페인트 18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상 타결

(주)노루페인트(사장 김수경)는 노동조합(위원장 박연수)과 지난 6월 24일 임금인상 협상을 벌여, 18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상 타결을 이루었다. (주)노루페인트 11대 집행부는 소통, 공유, 공감, 참여의 4대 행동원칙 하에 2개월간 전 조합원 임금간담회를 실시하고, 3차례 걸쳐 교섭위원회 회의를 실시하여 현실적인 임금협약안(案)을 만든 다음, 대의원들의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임금협약을 시작하여 이번 무분규 임금협상을 이루어냈다. 박연수 노조위원장은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더 행복한 회사, 조합원의 꿈이 실현되는 행복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노동조합이 되겠다고 밝혔다.

# News Briefing

## • 뉴스 브리핑



(주)노루기반, 비닐 및 유리온실용 친환경 차광도포제 우수성 입증



(주)더기반 안성 종자연구단지 연구동 기공식



노루난파오도료(베트남)유한공사,  
베트남의 가난한 어촌에 한국식 벽화 진행

### (주)노루기반

인정 성분이 강우에 의해 자연스럽게 제거되어 편리하다. 이재한 농진청 연구사는 “차광도포제를 토마토, 멜론 등 수출과 채류 재배 온실에 확대 적용하면 농가 소득 향상은 물론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주)노루기반, 비닐 및 유리온실용 친환경 차광도포제 우수성 입증

NOROO 그룹의 농업사업 자회사인 (주)노루기반은 농촌진흥청(이후 농진청)과 (주)노루페인트가 공동 개발한 ‘비닐 및 유리온실용 친환경 차광도포제’의 품평회를 경남 함안의 한 농가에서 열어 그 우수성을 입증했다고 지난 6월 9일 밝혔다.

농업 관련 공공 연구기관, 인근 지역 재배농가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품평회에서 파프리카 재배 시설 하우스의 유리온실 바깥 면에 골고루 차광도포제를 바른 후 내부 온도 변화를 살펴본 결과, 지온과 기온이 3~4도 낮아지고 직사광선 유입이 현격히 줄어 파프리카의 수확량이 늘고 열과현상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

농진청과 (주)노루페인트가 공동개발한 차광도포제는 직사광선 차단 효과가 뛰어날 뿐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온실 외부에 남아

### (주)더기반

(주)더기반 안성 종자연구단지 연구동 기공식  
(주)더기반은 지난 6월 3일 안성 종자연구단지에서 연구동 신축공사 기공식을 열었다. (주)더기반의 연구동은 NOROO 그룹의 농생명 분야를 이끌어나갈 종자 개발 연구에 쓰일 연구시설로써 올해 안으로 준공될 예정이다. 연구동은 총 3개 층에 약 1,000평의 면적으로 구성되며 현대적이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갖추게 된다. 한영재 NOROO 그룹 회장은 기공식 축사에서,

“NOROO 그룹의 화학 기업으로서의 성공 경험과 R&D 역량을 바탕으로 더기반이 종자 사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길 바란다. 또한 더기반은 창조와 혁신, 화합과 협력으로 육종 연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역량을 구축할 것이다”라고 종자 사업과 더기반에 대한 포부와 함께 기대를 밝혔다.

### 노루난파오도료(베트남)유한공사

노루난파오도료(베트남)유한공사,  
베트남의 가난한 어촌에 한국식 벽화 진행  
한국과 베트남의 청년들이 힘을 합쳐 베트남의 낙후한 어촌을 한국식 벽화마을로 새롭게 탄생시켰다. 공공외교 전문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노루난파오도료가 베트남과의 문화 교류를 넓히기 위해 꽝남성 땀끼시에서 마을 꾸미기 사업인 <아트 포 베터 플

레이스(Art for Better Place)> 프로젝트를 펼친 것. 땀끼시 해변의 2개 마을에서 펼쳐지는 이 사업은 양국의 예술가와 마을 주민, 현지 당국자 등이 참여해 낙후한 주택과 거리에 벽화를 그려 넣었다. 땀끼시 당국자는 “이번 마을 꾸미기 프로젝트 덕택에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높아지고 낙후한 해안 마을이 생태 문화 관광지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노루난파오도료는 한국식 벽화마을 조성을 추진함에 따라 벽화 전문 작가 5명과 청년 봉사단 12명을 현지에 파견했다. 벽화 디자인은 이강준 공공디자인 연구소가 맡았고, 노루난파오도료(베트남)에서 페인트 외 부자재를 후원했다.

## 1 MINUTE GUIDE



## 여름, 소소하게, 시원하게

여느 해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는  
그렇다고 일찍 물러갈 기세도 아니다.  
피서며 물놀이로 더위를 피하는 것도 잠시일 뿐,  
결국은 스스로 물러갈 때까지  
이런저런 수를 써가며  
매일 견뎌내야 할 것이 여름 더위다.  
내 몸의 건강과 쾌적한 일상을 위해  
일상 소품들로 소소하게,  
시원하게 여름을 나는 팁들을 살펴 본다.

### 부채

부채는 바람을 만들어 줄뿐만 아니라 햇빛을 가리는 데도 유용하다. 부채질이 귀찮다면 휴대용 선풍기도 있다. 집에서는 좌석으로, 사무실에는 탁상용 미니 선풍기로 구비되는 여름 친구 선풍기, 야외에서는 휴대용 선풍기로 바람을 소지하자. 손에 들고 사용하는 것보다는 목에 걸거나, 스마트폰에 꽂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얼음팩을 넣어 더 시원한 바람을 제공해 주는 제품도 있다. 여름철 가방 안 부채와 휴대용 선풍기는 더위에 든든한 방패가 되어 준다.

### 손수건

더위와 싸우기 위해 장렬히 발산된 땀들을 닦아내는 손수건은 여름 필수품이다. 때로는 적셔서 목이나 머리에 걸치고 부채질을 해 주면 시원함은 배가 된다. 면 손수건이 기본이지만 요즘은 물에 적시면 더 차가워지는 쿨 스카프도 인기다. 이러한 제품은 빨리 말라 휴대하기도 좋다. 물에 담궜다가 냉동실에 얼려 차갑게 유지시키는 아이스 스카프는 야외 활동 시 유용할 것이다. 일상과 레저용으로 장소에 따라 적합한 손수건들을 다양하게 이용해 보자.

### 차량 온도

외부기온 30도일 경우, 햇빛에 노출된 차안의 온도는 앞선반이 92도, 뒷선반이 78도에 이를 정도다. 만약 앞선반에 라이터나 음료수 병, 분무형 탈취제 등을 올려 둔다면 차 안은 폭발 현장이 되어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여름철 주차 시 창문을 살짝 열어두면 5도, 앞유리에 가림막을 덮어두면 20도를 낮출 수 있으며 타기 전에 운전석의 문을 세 번 정도 여닫으면 5도 정도 추가로 낮출 수 있으니 유념하자.

### 쿨팩

거울의 핫팩이 있다면 여름엔 쿨팩이 있다! 주로 어린 이들의 해열용으로 쓰던 붙이던 쿨팩이 이젠 다용도로 변신, 여름철 소품이 되었다. 목 뒤나 팔 안쪽, 등과 발목 등에 붙이면 청량감에 잠시나마 더위가 가신다. 붙이는 파스형 쿨팩과 냉동실에 넣어 두었다가 사용하는 겔타입 아이스팩 등이 있으며 얼굴 전용으로 나온 얼음 마스크도 하루의 열기를 식힐 때에 유용하다.



NOROO의 젊은 소통을 위해 결성된 노루 이름의 1기가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남 그 자체로서도 기쁘다 말하는 그들은 100년 노루를 향해 '레디~ 액션'을 힘차게 외쳤습니다.



노루페인트로 하얗게 꾸민 목포의 성덕원이 남쪽의 맑은 햇살에 그리스 산토리니의 마을처럼 반짝반짝 빛납니다. 성덕원 이경숙 원장님과 푸른산업 조성식 사장님의 미소도 햇살만큼이나 눈부시네요!



하늘에 오르려면 땅을 달려야 한다는 것, 패러글라이딩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취미 활동인 패러글라이딩을 통해 일과 삶의 지혜를 거듭 깨닫는 노루크로비스 지일신 주임님입니다. 카메라 앞에 선 주임님의 모습에서 도전을 피하지 않는 자의 당당함을 봅니다.